

기획좌담 -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

# "부처님 가르침 인류공유화 작업"

팔만대장경 전산화작업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의 국보 팔만대장경을 영구히 보존 계승시켜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정보로 만들어가는 민족의 대역사다. 팔만대장경의 전산화 의의는 무엇이고 전산화를 통해 불교계와 우리 사회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본지는 지난 7일 (사)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와 공동으로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 21세기 팔만대장경을 함께 만듭시다'를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열었다. (편집자 주)

**△현기:** 팔만대장경 전산화를 위한 범국민모금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17일부터 시작된 '한사람 한경관 만들기운동'을 통한 팔만후원인 모집'에는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 많은 분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선 팔만대장경 전산화 의의와 그 역사적 가치부터 짚어봤으면 합니다.

**△종림:** 팔만대장경의 전산화는 한국불교가 자체번역을 통해 세계 불교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의 빠른 진입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타분야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김홍규:** 진보의 역사가 인간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 말씀을 모은 불경의 전산화는 그속에 담긴 지혜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향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이종욱:** 우리는 이제껏 장경각



△종림스님



△현기스님



△김홍규교수



△이종욱교수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종림:** 지금까지 불경해석은 스님들의 독점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불교의 세계가 열릴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급정보, 순수한 인간본성을 지향하는 팔만대장경 전산화는 새로운 인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현기:** 지금까지 불경해석은 스님들의 독점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불교의 세계가 열릴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급정보, 순수한 인간본성을 지향하는 팔만대장경 전산화는 새로운 인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현기:** 지금까지 불경해석은 스님들의 독점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불교의 세계가 열릴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급정보, 순수한 인간본성을 지향하는 팔만대장경 전산화는 새로운 인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현기:** 지금까지 불경해석은 스님들의 독점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불교의 세계가 열릴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급정보, 순수한 인간본성을 지향하는 팔만대장경 전산화는 새로운 인

## 경전 전산화 21세기 문화창출 핵심 국가경쟁력 강화...범국민 동참을

원관 그대로 보존만 해 왔습니다. 정보화시대로 진입하려는 이 시점에서 팔만대장경의 전산화는 불교사상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현기:** 정보화 정보화하는데 과연 정보화시대란 무엇이며, 그속에서 팔만대장경의 전산화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욱:** 정보사회는 정보의 가치나 정신이 중요시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정보검색체계, 예를들면 DB(데이터베이스)나 색인화가 돼 있어 부처님 말씀이나 큰 스님들의 화두를 찾고자 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거기서 얻어지는 부가적 가치 또한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홍규:** 정보화시대에서 인문·사회과학의 비중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속에서 부처님 경전의 대중화는 밝고 맑은

감상, 붓다상의 참출이라는 점에서 매우 가치있는 일이지요.

**△김홍규:** 팔만대장경은 경전이면서 또 위대한 문학입니다. 위대한 문학이므로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읽혀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다와 같은 부처님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불경의 전산화는 부처님 말씀이 가득한 바다를 여행할 수 있는 지도와 배를 만드는 일만큼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기:** 그렇다면 정말 현재의 지식이나 기술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까?

**△이종욱:** 실제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멀티미디어 시대로 문자, 그림, 음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배경음악이나 영상도 결합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음란이나 외설과 같은 쓸모없는 정보의 범람일

개인이 아닌이나 가십과 같은 부처님의 제자가 돼 부처님과 질의 응답을 하는 가상현실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종욱:** 실제로 정보를 찾기 위해 허비하는 많은 시간들을 수행정진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정보화된다는 것은 일단 평등함이라는 대 원칙하에서 만인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인류평등이 이루어 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계승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어 한 사람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요.

**△김홍규:** 그렇습니다. 대장경 전산화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보화사회의 문자의 전산화를 중요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동북아시아 한문문화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있

수 있는 모든 한자를 포함하고 있는 대장경의 전산화는 지식이나 기술의 개발을 가져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장경 전산화를 이루기 위해 불자들이 아니라 정부관료, 기업, 그밖의 뜻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종림:** 고려대장경은 초기경전뿐만 아니라 대승경전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전산화는 매우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승경전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몇몇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종욱:** 대장경의 전산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전산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자의 표준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한문대장경의 전산화를 통해 표준어를 누구보다 먼저 내놓는다면 기술의 선점은 물론 세계불교문화를 주도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한글대장경의 전산화를 통해 정보의 대중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종림:** 고려대장경연구소는 팔만대장경을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인식한 정부로부터 정보산업 육성책 차원에서 4억원을 지원받아 전산화를 추진해 오고 있지만 매우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는 2000년까지 대장경의 입력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교정단계에 있는 이 작업은 98년까지 교정·수정작업을 끝내고 99년 검색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종욱:** 현재 정부는 너무 기술 지향적이라 그 정신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에 인문학 전공자들을 대거 참여시켜 그 가치찾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범종단, 범국민 차원에서 이 캠페인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가치있는 문화유산의 세계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종교가 워든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팔만대장경의 전산화는 불교계 사업이 아닌 범국민적 문화사업이라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김홍규:** 경제실적으로 봐도 세계각국에서 물건들 사고 팔 때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전산화할 정도로 문화적 가치와 품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다 라고 홍보가 된다 면 국제적으로도 기업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또한, 불경의 전산화는 불교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대장경 전산화가 이뤄져 부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욱:** 정보사회의 전환에 있어 팔만대장경의 전산화는 불교 변화의 모티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모두가 이에 동참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종림:** 팔만대장경의 전산화는 물질지향세계의 끝이고 정신세계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2000년이면 '전자팔만대장경'이라는 이름으로 전 인류의 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때까지 앞만 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윤기서 기자



○지난 7일 조계사에서 열린 '팔만 후원인' 모집을 위한 생방송 현장 캠페인.

(사)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는 불교방송과 함께 지난 7일 오전10시부터 오후1시까지 3시간동안 서울 조계사 불은사 도선사 등 세 곳에서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 21세기 팔만대장경을 만듭시다' 생방송 현장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에는 삼성출판사 김중규회장, 한진중업 한강집회장, 가수 김홍국씨 등 각계 인사들과 초하루 법회 신도 등 3백여명이 동참했다.

전 문화부 장관인 이이령교수(이화여대 국문과)는 BBS 생방송에 직접 출연해 팔만대장경 전산화에 범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고 격려하는 방송을 40분간 했다. (편집자 주)

### 이이령교수, BBS '한사람 한경관' 방송 요지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 한자 한자 온 정성을 기울여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재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출만 하면 하나의 완성된 대장경, 즉 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예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지 어렵다고 본다.



고 있는 팔만대장경 전산화 동 참운동은 온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몽고병화의 어려운 역경을 연상케 한다. 우리는 이 불사를 과거 7백년 전의 먼 이야기

### "7백년전 새긴 호국정신 대장경 전산화로 재현 한국문화 세계로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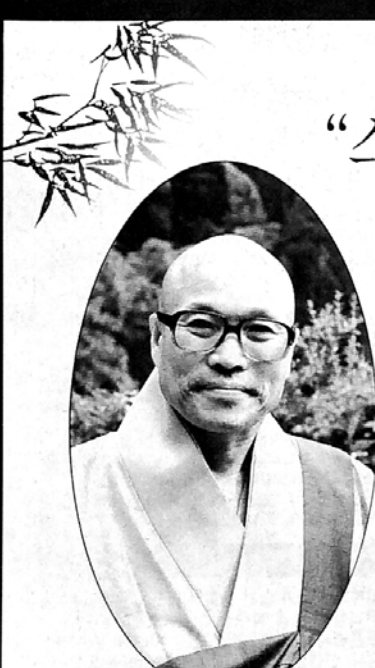
경을 논 삼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불교학연구는 물론 일반문화 연구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 상당 부분이 불교에서 온 것으로, 경전을 모르고 우리문화를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팔만대장경의 전산화는 언어학적으로나 사회문화사적으로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 아닐 수 없다.

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문화가 꼭 해야 할 과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다.

방대한 팔만대장경을 전산화한다는 것은 거기에 포함된 거의 모든 한자를 폰트(font)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정보기술의 축적을 통해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정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범국민적으로 벌어지

실현하는 일이라 하겠다.



##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임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 생활 속의 기도법

"기도는 실천적이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능이나 중요한 일이다."

**일타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 祈 禱

기도

불교 출판계의 스타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I.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II.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 III. 업병도 불행도 기도를 통하여 / IV. 죽음을 구한 일념의 기도 / V. 생활 속의 기도의 특력(得力) / VI.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스님의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조선>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정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반(無礙辯)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생기는 일타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